모택동과 문혁 시기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운동 원인과의 관련성 연구

김기효*

<차 례>

1. 머리말
2. 상산하향운동의 기원(起源)과 시대적 배경
3. 문혁 시기의 상산하향운동의 추진 배경과 목적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글은 문혁 시기 전개된 상산하향운동의 기인에 관하여 간략하게 연구를 진행하였다. 상산하향운동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상산하향운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대부분의 연구는 문혁 시기의 그것을 어느 정도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서 전개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인정하면서, 상산하향운동에 지식청년들이 동원되었던 점에서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

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추가로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상산하향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직접적인 원인이 바로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즉 환언하면,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기에 지식청년들에게 상산하향을 강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1950년대와 문혁을 통하여 수많은 지식인들을 박해하고 타도하였다. 특히 문혁 시기에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그 지식인을 박해하고 타도하려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는 당시 지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 또한 지식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조를 구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빈하중농(貧下中農)으로부터 재교육(再教育)을 받도록" 하는 슬로건을 통해 상산하향운동을 유도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문혁 시기의 상산하향운동은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을 근거로 한 지식청년들의 사상을 개조하고자 했던 '반지식인운동(反知識人運動)'과도 일부 맥락을 함께 한다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고자 한다.

주제어: 사상개조운동, 지식청년, 상산하향운동, 문화대혁명, 모택동

1. 머리말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60년대 중국에서 발생했던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에 대한 연구는 중국근현대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범주에 속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무려 10년이나 지속된 문화대혁명은 그 전개 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사상・문화

각 방면에 있어서 과거에 대해 철저하게 부정하면서, 현재를 개혁하려 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국가는 물론 인민 개개인의 상흔으로 남아[1] 그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까지도 영향을 끼쳤던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문화대혁명이 최고조기에 달했을 때, 지식청년[2]들에게 요구했던 상산하향운동(上山下鄉運動)이라고 할 수 있다.[3]

모택동의 집권 시기, 특히 신중국 수립 이후 모택동에 의해 추진된 각종 정책들 가운데에는 지식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그 배경으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 신중국 수립 직후 시행되었던 사상개조운동이나 쌍백방침, 반우파투쟁, 그리고 그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교육혁명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이외에도 본고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문혁이 종결될 때까지 지식청년들을 대상으로 했던 상산하향운동 또한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인식을 근거로 시행된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상산하향운동에 대해서는 당시 중국이 처한 경제적 문

---

1) 손승회, 「新左派의 文化大革命 認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9호, 2013, p. 72.

2) 지식청년은 간단하게 지청(知青)이라고도 칭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특정한 시기와 특정한 대중들을 의미하는 역사 용어이다. 지식청년의 본래의 의미는 지식을 지닌 청년 혹은 그 당시 차원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킨다. 물론 50년대 상산하향운동의 대상에 소학교 졸업생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1950년대 중반부터 문화대혁명 시기에 자원을 하였거나 혹은 강압에 의해 농촌으로 내려가서 농민이 되었던 청년들을 주로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3) 상산하향운동을 통해 당시 농촌으로 떠났던 수많은 학생들은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생활해야만 했다는 점 등으로부터 개개인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주장한다. 王增如・李向東, 『上山下鄉: 中國 1968』, 解放軍出版社, 1999, p. 8. 아울러 이들 가운데 많은 수의 지식청년들이 지금까지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상산하향운동이 더 이상 역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제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산하향운동이 시작되었고, 문혁이 개시된 이후에야 비로소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써 상산하향운동을 재차 제기하였다는 주장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상산하향운동이라는 주제는 학계로부터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적지 않은데, 문화대혁명 이전 시기에 시행되었던 상산하향운동은 물론, 문화대혁명 시기에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의 기본적인 원인 및 이 운동에 대한 평가의 문제와 함께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후, 농촌에 정착했던 지식청년들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려는 현상 등 사회문제를 포함[4] 한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상산하향운동의 기원 및 기간, 그리고 그 성격에 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이를 요약하면, 첫 번째, 상산하향운동의 기원 및 기간에 대한 것으로 상산하향운동은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말까지 진행되었던 운동이라는 점,[5] 두 번째, 문혁 이전에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의 주요 목

4) 吳林根,「毛澤東與知青上山下鄉運動析」,『毛澤東思想論壇』, 1995年 01期.

5) 張澤民・買文蘭,「知識青年上山下鄉的歷史考察與思考」,『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年 05期 ; 許珍芳・杜雪暉,「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興起時間再考查」,『學理論』, 2013年 08期(이상의 논문에서는 연구자들이 상산하향운동의 흥기를 1950년대와 1968년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1964년으로 보고 있는 점은 주의할만하다) ; 火木,『光榮與夢想－中國知青25年史』, 成都出版社, 1992.(상산하향운동을 시험단계 시기(1955-1966), '좌'의 영향을 받아 문제가 가장 많았던 시기(1966-1978)와 조정정책, 취업궤도에 오른 단계(1978년 말-1980년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 하지만 화목(火木)의 주장과는 달리 첫 번째 단계(1955-1958), 두 번째 단계(1960-1965), 그리고 마지막 단계(1966-1979)를 약간 다른 시기로 구분한 연구자도 있다. 杜鴻林,『風潮蕩落--中國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史』, 海天出版社, 1993 ; 그리고 첫 번째 시험 단계로 주로 이민을 목적으로 했던 시기(1955.8-1962), 상산하향이 최고봉에 달했던 두 번째 시기(1962-1978), 그리고 마지막 시기로 농촌에서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자 했던 시기(1978-1981)로 구분한 연구도 있다.(方奕,「論知識青年上山下鄉的歷史分期」,『中國青年研究』, 1995年 第4期) ; 나아가 더욱 세분화하여 시기를 네 단계로 나눈 연구자도 있다.(柳建輝,「也談中國知青的歷史分期」,『中國青年研究』, 1996年 第1期와 顧洪章 主編,『中國知識青年上山

적이 도시의 잉여 노동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제공해주는 것이었다면, 문혁 이후에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의 주요 목적은 문혁의 시작과 함께 학교 수업의 정지로 진학을 하지 못한 학생들이 과잉으로 배출되고 있었는데, 혁명에만 주의를 기울인 탓에 경제의 악화에 따라 파생한 이들의 취업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6] 세 번째, 50년대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의 목적이 취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던 반면에, 문혁 이후에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의 동인(動因)은 결코 취업문제가 아니라,[7] 도시의 지식청년들에게 "빈하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도록 한 모택동의 지시를 반영하였다는 점[8] 등이다. 즉 도시에서 학교를 졸업하였으나 상급학교의 부족으로 인해 더 이상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진학문

下鄉始末』, 人民日報出版社, 2008.)

6) 張曙, 「試論"文革"中的知青上山下鄉運動幾度起伏的經濟因素」, 『世紀橋』, 2001年 01期 ; 鄭謙, 「"文化大革命"中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五題」, 『中共黨史研究』, 2013年 9期 ; 潘鳴嘯, 「上山下鄉不解決就業實爲强化領袖權力」, 『青年時報』, 2014年 ; 일부 연구자는 '상산하향'이 취업을 앞둔 수많은 홍위병들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고 주장하였다(金聖基 主編, 『聚焦人民大會堂 見證共和國重大歷史事件始末』, 中共黨史出版社, 2006, pp. 60-62 ; 王一晶, 「知識青年上山下鄉和勞動就業」, 『青年研究』, 1991(11), pp. 36-41.)

7) 潘鳴嘯, 「上山下鄉運動再評價」, 『社會學研究』, 2005年 第5期.

8) 張澤民·買文蘭, 앞의 논문 ; 米鶴都, 「析上山下鄉運動的起源」, 『當代中國史研究』, 1999年 02期 ; 席宣, 金春明 著, 『"文化大革命"簡史』, 中共黨史出版社, 1996(본래는 주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났던 상산하향이, '반수방수'의 정치운동으로 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楊文才, 「"文革"前"知青"上山下鄉的起因與作用」, 『廣西社會科學』, 2002年 05期 ; 魏紅躍, 「1955-1965年的上山下鄉研究」, 陝西師範大學, 2007 ; 孫濤, 「知識青年上山下鄉政策之歷史性反思」, 『石家莊經濟學院學報』, 2004年 05期 ; 孫懷安, 「"文革"中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擴大化原因的多維視角」, 『遼寧行政學院學報』, 2006年 10期 ; 상산하향운동을 정치와 의식형태 방면에 그 원인을 두는 연구자도 있다. 즉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의 근본 원인은 문혁 시기 지식분자에 대한 '좌'적 착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柳建輝, 「"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興起原因初探」, 『中國青年研究』, 1991年 第4期, p. 31.)

제나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이라던가, 도시의 잉여 노동력을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제공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상산하향운동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혁 시기에 진행된 상산하향운동 역시 문혁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정지된 이후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학생들의 출로 문제를 해결하고, 홍위병에 의해 혼란스러워진 상황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하여 모택동에 의해 상산하향운동이 재차 제기되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연구자들의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정확하므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 하지만 상산하향운동에 대해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우선적으로 취업문제 해결이나 농촌에 대한 노동력 제공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거나, 후계자 문제나 교육적 측면을 그 배경이나 영향으로 주장[9]하고 있을 뿐, 이 상산하향운동의 원인을 모택동의 지식인에 대한 인식과 관련지은 연구는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10] 사실 문혁 당시 이들에 의해 야기된 국가적, 사회적으로 혼란한 분위기를 일소하기 위한 측면도 있었다는 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 또한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접근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중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

9) 張樹軍・史言 主編, 『紅色檔案: 中國共産黨重大事件實錄』 下卷, 湖南人民出版社, 2006, p. 586.

10) 상산하향운동을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일관된 정치 인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연구자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지식인을 육체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언급하고 있다. (米鶴都, 앞의 논문, p. 94.) ; 한편 상산하향운동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정치적인 압박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연구자도 있다. (孫懷安, 앞의 논문, p. 221) 하지만 본고의 주제인 상산하향운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하고 있는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필자는 기존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① 상급학교의 부족으로 졸업한 학생들 대부분이 진학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상황이 출현한 배경과 ② 상산하향운동의 대상이 하필 지식청년들이 되어야 했던 원인, 그리고 ③ 모택동이 이전부터 주장해 온 '교육은 생산노동과 결합'해야 함을 강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산하향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지식과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 인식에서 찾고자 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본고는 문화대혁명 당시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에 이왕에 제기된 다양한 원인과 목적 등의 연구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추가하여 모택동의 지식인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여 지식청년들에게 상산하향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첫째, 상산하향운동의 기원과 시대적 배경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이는 문혁 이전에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의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이 운동이 지니고 있는 성격과 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던 모택동의 의도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 문혁 시기에 진행된 상산하향운동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검토할 것이다. 이에 대한 검토에서도 당시 지식청년에 대한 모택동의 인식은 물론 이 상산하향운동에 대한 지식청년들과 사회의 인식도 포함할 것이며, 이를 통해 상산하향운동의 효과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 연구는 대단히 초보적으로 진행되는 연구이므로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을 것이며, 제한된 지면으로 많은 부분을 언급할 수 없지만, 문혁을 거치면서 구성된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대상이라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복잡다단한 문혁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 상산하향운동의 기원(起源)과 시대적 배경

1954년 소련에서는 대규모 황무지 개간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인민을 황무지 개간의 주체로 삼았다. 그리고 2년 동안 총 27만 명의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어 황무지를 개간하게 하였다. 그 결과 전체 농업생산의 성장 속도는 물론, 전체 농업생산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양식이 부족했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취업문제까지도 일거에 해결하였다.[11] 그리고 1955년 4월, 중국 정부 인원들은 소련을 방문하여, 도시의 청년들을 농촌으로 이주시켜 황무지 개간 운동을 추진한 상황을 목격하였다. 그 후 소련에서 취한 이 운동을 중공중앙에 상신한 보고서에서, "도시에서 젊고 건장하고, 교양을 갖춘 청년들을 황무지 개간 공작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득이 되며, 또한 금후 진학을 하지 못하거나 직업이 없는 도시 청년들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실 황무지 개간 공작에 교양을 갖춘 청년들이 과연 무슨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지만, 이 의견은 모택동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12]

그리고 이후 모택동이 지식인들로 하여금 농촌으로 가서 일할 것을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1955년 9월의 일로, 하남성 허창(許昌) 지위(地委) 농촌공작부가 작성한 『겹현(郟縣) 이씨 집성촌의 향(鄕)에서 합작화 계획을 진행한 경험』이라는 글에 대해 모택동은

---

11) 李華, 「20世紀50年代蘇聯全民墾荒運動」, 『南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第3期.

12) 「知青上山下鄉緣起蘇聯只爲解決糧食和就業問題」, 『網易新聞中心』, 2006. 03. 13.

> 매우 훌륭한 문장이다. 각지에서는 참고하도록 하라. 중고등학생과 고급초등학교 졸업생을 합작화(合作化) 공작에 참가하도록 조직하는 것은 특별히 주의할만한 가치가 있다. 농촌으로 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인들은 응당 기쁜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야 한다. 농촌은 넓은 세상이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13]

고 자신의 소견을 언급하였다. 모택동의 이 말은 지식인들에게 지식을 매개로 농촌에 봉사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는 이미 이전부터 지식인이 노동자·농민 대오와 상호 결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며 그 지식인이 혁명적인가 혁명적이지 않은가는 바로 이들 노동자·농민과 상호 결합을 실행하였는가와 결합하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14]

모택동의 이 말은 연달아서 수많은 청년들을 북경을 비롯한 도시에서 농촌으로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정부는 지식청년들이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 혹독한 농촌으로 갈 것을 자원(自願)하였다고 하였지만,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직면하고 있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식청년들을 희생시키는 것이었으며, 또한 상산하향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때까지 줄곧 이 운동에 참여한 모두가 자원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도시에서만 자랐던 이들은 경험도 없던 농촌으로 가는 데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따라서 이들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 황무지를 개간할 인원을 조직하여 시범적으로 운용한 뒤, 순조롭게 임무를 완성하자, 비로소 대중에게 이를 공포하기도 하였다.[15]

---

13) 毛澤東,「〈中國農村的社會主義高潮〉的按語」, 中共中央毛澤東主席著作編輯出版委員會編,『毛澤東選集』Vol.5, 人民出版社, 1977, pp. 247-248.

14) 毛澤東,「五四運動」1939년 5월 1일, 中共中央毛澤東主席著作編輯出版委員會編, 위의 책, Vol.2, 1952, p. 546.

15) 劉小萌,『中國知青史 大潮(1966-198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p. 8 ; 천이난(陳益南) 지음, 장윤미 옮김,『문화대혁명, 또 다른 기억 : 어느 조반파 노동자의 文革 10년』, 그린비, 2008. p. 110.

이렇게 수많은 도시의 학생들을 농촌으로 굳이 보내고자 하였던 것은 당시 도시에 넘쳐나던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과 취업하지 못한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측면 또한 강했다.[16] 1957년 유소기는 시찰 도중 장사중학생 대표와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의 내용은 유소기의 수정을 거쳐 1957년 『인민일보』에 사설(社說)로 게재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7]

>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진학을 하였는데, 일부는 진학을 하지 않았다. 중학교와 고급초등학교의 졸업생의 경우 일부는 진학을 하였지만, 대부분은 진학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다. … 금후 오랜 시간동안 전반적으로 더욱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졸업생들이 진학을 하지 못할 추세이므로, 반드시 생산에 참가하도록 하며, … 전국적으로 보면, 사람들을 가장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은 농촌이며,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방면이 농업이다. … 어떤 사람들은 우리 농촌이 노동력이 과잉(過剩)이이서 학생들이 농촌에 가서 할 일이 없을까봐 걱정을 한다. 사실이 증명하듯이, 합작화가 기본적으로 실현된 이후의 농촌 가운데 땅은 많고 사람은 적은 동북(東北), 서북(西北), 그리고 비교적 황무지가 많은 모든 농촌에서는 확실히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고 하여, 도시의 청년들에게 농촌으로 가서 일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도시에서는 지식청년들의 진학문제와 취업문제, 그리고 농촌에서는 노동력의 부족 문제로 인해 도시 청년들의 농촌행이 이미 음으로 양으로 전개되고는 있었지만, '상산하향'이라는 용어는 1957년 10월 25일 중국공산당 중앙이 제출한 「1956년부터

16) 「必須做好動員組織中小學畢業生從事生産勞動的工作」, 『人民日報』, 1955년 8월 11일.

17) 「關於中小學畢業生參加農業生産問題」, 『人民日報』, 1957년 4월 8일.

1967년까지 전국농업발전강요(수정초안)」에서 처음으로 공식 언급되었다.[18)]

> 도시의 중, 소학을 졸업한 청년들 가운데 진학하였거나 취업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국가의 호소에 반드시 호응하여 상산하향하여 농업생산에 참가하고 사회주의 농업건설의 위대한 사업에 참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85%가 농촌에 산다. 농촌이 만약 발전하지 못하면, 공업 또한 단독으로 발전할 수 없다. 농촌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이며,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는 '진학하지 못하였거나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과, 둘째 국가의 호소에 '반드시' 호응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점이었다. 당시 진학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될 정도로 숫자가 많아진[19)] 원인은 바로 당시 교육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사업의 발전에 있어 계획성이 결핍되어 있었고, 너무나 맹목적이었다. 그리고 본래 각급 학교의 불합리한 비율이 여전히 기본적으로 개조되지 못하여, 소학(小學)은 지나치게 발전하였으나, 고등과 중등전문학교의 발전은 비교적 더뎠기"[20)] 때문으로, 결국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이들 지식청년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부의 실책이었으며, 아울러 취업하지 못한 도시의 청년들로 하여금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게 하여 도시의 문제[21)]까지 해결하겠

---

18)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Vol.10, 中央文獻出版社, 1994, p. 655.

19) 1953년 중소학의 입학생 수를 줄인 결과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의 수가 1952년 10만 2천에서 1953년 213만 4천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高廣景, 「知識青年上山下鄉原因探析」, 『黨史文苑』, 2006年 第8期, p. 10.

20) 教育部組織編纂,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p. 89.

21)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전국에 등록된 실업자 수는 각각 36만 6천, 37

다는 의도였다. 또한 이들에게 '자유 의지'를 부여한 것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 정부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지식청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후 문혁 시기에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또한 모택동의 호소에 호응하여 상산하향운동에 참가해야 했으므로, 대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중국 정부가 상급학교의 부족에 따라 진학할 수 없는 학생들과, 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련으로부터의 경험을 적절하게 수용하여, 이를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인식[22]과 결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상산하향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상산하향운동을 반우파투쟁이 전개되었던 당시에도 이용하였다. 당시 국외적으로는 흐루시초프의 스탈린의 개인숭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발생한 폴란드와 헝가리 사건이 발생하여 중국을 진동하였고, 국내적으로는 1956년 9월부터 1957년 3월까지, 전국에서 연인원 약 1만 여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청원(請願)을 하는 수 십 건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수 십 곳의 도시에서는 1만 여 명의 대학교와 중등학교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청원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 중앙과 모택동은 이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였다. 그리고 헝가리·폴란드 등과 같

만, 24만, 43만 9천, 11만 9천, 5만 4천이었다가, 1956년이 되면 102만 5천명으로 급증할 정도로 도시의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梁勝宇, 「"一五"時期中國城鎭就業政策研究」, 『中共黨史研究』, 2005(1), p. 47.

22) 앞서 언급하였던 지식인이 노동자·농민 대오와 상호 결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며 그 지식인이 혁명적인가 혁명적이지 못한가는 바로 이들 노동자·농민과 상호 결합을 실행하였는가와 결합하기를 원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했던 모택동의 인식을 말한다. 각주 13) 인용.

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모택동의 요구에 따라 중국공산당은 정풍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정황 하에서, 모택동은 '반공(反共)·반인민(反人民)·반사회주의(反社會主義) 자산계급 반동파'들은 "민주당파, 지식인, 자본가, 청년 학생들 모두에게 있으며, 공산당과 청년단(공산주의청년단을 지칭) 속에도 있다."[23]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민일보』는 「소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하향을 적절하게 배치하자」라는 사설을 발표하고,

> 이번 반우파투쟁에서 수많은 구(舊) 지식분자들은 과거에 육체노동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인민을 경시하였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 일부는 사회주의 투쟁의 시련을 감당할 수 없기에, 반사회주의 우파분자가 된 것이다. 오늘날 지식청년들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 사실에서 교훈을 받아들여 생산노동에 열심히 참가하되, 무엇보다 육체노동에 참가해야 할 것이며, 노동자와 농민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단련하여, 강경한 사회주의의 건설자로 만들고, 충실한 사회주의 전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24]

라고 제의하였다. 이는 곧 육체노동의 경험이 없는 지식인들이 반사회주의 우파분자로 변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사전에 그들로 하여금 육체노동에 종사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을 『인민일보』가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더욱 확대되어 결국 이미 간부가 된 청년지식인들에 대해서도 농촌으로 가도록 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1958년 2월, 중국공산당 중앙은 「하방 간부의 노동단련에 관한 중공중앙의 지시」를 발표하고, 간부가 된 청년지식분자들에게 농촌으로

---

23) 毛澤東, 「文匯報的資産階級方向應當批判」, 中共中央毛澤東主席著作編輯出版委員會編, 앞의 책(Vol.5), p. 438.

24) 「妥善安排中小學畢業生下鄉」, 『人民日報』, 1957년 7월 11일.

갈 것을 지시하였다.[25] 이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농촌으로 향한 것이 아닌 정책에 의해 부득불 농촌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이렇듯, 도시 청년들에게 요구한 초기 상산하향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당시 도시와 농촌이 직면하고 있었던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으나, 이후 국내외적으로 처한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이용되었고, 나아가 이를 정치적으로 점차 확대·이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지식청년들을 지식인과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었던 모택동의 인식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3. 문혁 시기의 상산하향운동의 추진 배경과 목적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중국은 소련과의 관계 악화, 베트남전쟁, 국경문제 등으로 인한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소련과의 관계 악화로 인한 영향을 받아, 이로 인해 '반수방수'(反修防修)를 위해 사회주의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시행된 상산하향운동은 이미 1950년대의 그것에 비해 정치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가미되기는 하였지만, 문혁 시기의 그것에 비해 규모는 절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1966년 문화대혁명의 시작과 함께, 모택동은 계급투쟁을 요구하였고,[26] 이어서 당시 수많은 학생들이 모택동의 이 호소에 호

---

25) 「中共中央關於下放幹部進行勞動鍛鍊的指示」 1958년 2월 28일,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앞의 책(Vol.11), 中央文獻出版社, 1994, pp. 193-197.

26) 錢鋼, 「從《解放軍報》(1956-1969)看「階級鬪爭」一詞的傳播」, 『二十一世紀雙月刊』, 2003年 6月號, 總第七十七期, pp. 56-57 ; 人民日報 社論, 「橫

응하면서,[27] 중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이들 홍위병조직은 문혁 초기에는 모택동으로부터 크나 큰 지지와 관심을 받았다. 이처럼 모택동의 지지를 등에 업고서 법률을 초월하는 행동을 묵인 받고,[28] 대신에 그들은 모택동 개인을 위해 행동하는 전위조직이 되어야만 했다. 그리고 모택동이 처음부터 원했던 '천하대란'(天下大亂)[29]은 결국 그들의 폭력성에 의해 현실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바로 모택동이 문혁을 발동한 원래의 목적이기도 하였다.[30] 그렇게 모택동의 의도대로 문혁이 진행되었지만, 모택동이 추구하고자 했던 문혁과 홍위병운동이 고조될수록 국가와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시간이 갈

掃一切牛鬼蛇神」, 『人民日報』, 1966년 6월 1일.

27) 「北京和全國廣大群衆歡呼毛澤東思想的新勝利, 熱烈擁護黨中央關於改組北京市委的英明決定」, 聶元梓・楊克明・趙正義・高雲鵬・李醒塵・夏劍豸・宋一秀, 「黨中央的決定百倍地鼓舞了我們的鬥志」, 『人民日報』, 1966년 6월 5일.

28) 당시 홍위병의 행동에 대해 '인류의 존엄을 위반'하고, '사회의 전통을 파괴'하였다는 비난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모주석과 당 중앙의 지시에 따라', 자산계급 반동노선을 파괴하고, 당내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실권파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고 주장하였다.(『紅旗』雜志評論員, 「紅衛兵讚」, 『紅旗』雜志, 第12期, 1966년 9월 17일)

29) 毛澤東, 「給江青的信」 1966년 7월 8일, 『建國以來毛澤東文稿』 Vol.12, 中央文獻出版社, 1998, p. 71.

30) 학생들을 끌어들이고자 하였던 것이 원래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문혁이 정식으로 일어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왕력(王力)은 복건지역으로 상산하향을 떠난 지식청년과 담화를 나눌 때, 문혁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다.
『문화대혁명에 대한 너희들의 인식은 부족하다. 학생운동으로는 이 혁명의 임무를 완성할 수 없으며, 수많은 노동자와 농민의 참여가 없다면 혁명은 곧 승리할 수 없다. 문화혁명이 막 시작했을 때, 우리는 이미 노동자와 농민이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이번 문화대혁명은 학생운동이다. 결과적으로 시작하자 곧 탄압을 받았다. 그러나 군중운동은 탄압할 수 없다.』고 하였다.(「王力與福建上山下鄉知識青年邱學峰的談話」 1966년 11월 29일,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服務中心, 2006.

수록 더해져만 가는 사회의 혼란과 불안 앞에서 정부 조직은 물론, 공장과 학교도 문을 닫았으며, 심지어는 중국의 지도자까지도 오히려 타도의 대상이 되는 등 그 누구도 혼란을 수습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말았다. 결국 홍위병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시하였던 모택동은 홍위병의 해산을 요구하게 되었고, 중공중앙 또한 홍위병들이 활동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하였다.[31] 이후 홍위병운동은 점차 그 활기를 잃게 되었다. 게다가 1966년 11월 10일 상해에서, 후일 '사인방'(四人幇)의 일원이 되었던 왕홍문(王洪文)이 조반 노동자를 이끌고 전국의 주요 철로를 끊어버린 '안정사건'(安亭事件)이 발생하였다. 모택동은 이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지지를 표명하였다.[32] 그리고 1967년 1월 6일, 장춘교, 요문원 등의 책략 하에 왕홍문을 필두로 하는 상해의 노동자들이 중공 상해시위(上海市委) 타도 대회를 개최하고 상해시위의 당정 권력을 탈취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33] 모택동은 이 사건에 대해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전복시킨 대혁명이라면서 상해의 노동자들을 열렬하게 지지하였다.[34]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1월 권력 탈취사건'이다.[35] 이후 모택동은 이들 지

31) 「中共中央, 國務院《關於革命師生進行革命串連問題的通知》」 1966년 11월 16일, 「中共中央, 國務院《關於大中學校革命師生進行革命串連問題的補充通知》」 1966년 12월 1일, 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黨史黨建政工教研室, 王年一 選編, 『"文化大革命"研究資料』上冊, 1988, pp. 161-162, pp. 180-181.

32) 尹家民, 『紅牆知情錄 : 新中國的風雨歷程』, 當代中國出版社, 2010, (http://history.people.com.cn/GB/205396/13921300.html)에서 재인용(검색일자 : 2015년 7월 13일)

33) 정재일 지음, 『通으로 보는 중국현대 30년사 : 갈등과 투쟁의 30년(1949년~1979년)』, 가림출판사, 2010, p. 230.

34) 陳揚勇, 『周恩來在1967』, 重慶出版社出版, 2006, p. 9 ; 王檜林 主編, 郭大均 副主 編, 『中國現代史1949-2002』 下冊, 高等教育出版社, 2011, p. 223.

35) 高等院校黨史教師 合編, 『中共黨史學習資料』, 1981, pp. 106-107.

식청년보다는 더욱 혁명적인 계급으로 간주하고 있었던 노동자에 주목하고 그들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노동자의 조반에 의해 권력을 탈취한 사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반면 홍위병조직이 권력을 탈취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모택동과 중앙정부는 또다시 지식청년들에게 혁명적 행위를 앞세워 그들에게 농촌으로 가서 일을 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1967년 5월『인민일보』는「지식청년은 반드시 노동자·농민과 결합해야 함」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발표하여,[36]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을 권장하였다. 당시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한 지식청년 대다수가 조반파였다는 사실이 홍위병들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7] 한편 중공중앙, 국무원, 중앙군위(中央軍委), 중앙문혁소조(中央文革小組)의「상산하향에 참여한 지식청년과 기타 인원들은 농촌에서 혁명에 힘을 쏟아 생산을 촉진할 것을 견지하라는 긴급통지」에 따르면,

> 지식청년과 그 밖의 인원들에게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하여 노동자와 농민들과 상호 결합하고, '3대 혁명운동'[38]에 참가하여 사회주의 신농촌을 건설하라는 것은 모주석의 위대한 지시이므로, 동요하지 말고 반드시 견지하라. 당내 자본주의 노선을 걷는 한 줌의 당권파의 선동으로 인해 일부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한 인원들이 농촌을 떠나 오랫동안 도시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은 혁명과 생산에 모두 불리하다. 지식청년들은 상산하향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모주석의 '혁명에 힘을 쏟아 생산을 촉진하라'는 위대한 전략방침을

36)「知識青年必須同工農相結合」,『人民日報』, 1967년 5월 4일.
37) 紅中會長沙一中《奪軍權》一兵,「長沙知識青年運動考察報告」1967년 11월 16일,『知識青年上山下鄉資料匯編』, (html파일).
38) 생산투쟁, 계급투쟁과 과학실험을 가리킨다.

> 단호히 지키도록 하라. … 도시에 체류하고 있는 하향인원들이 신속하게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농촌에서 혁명을 하고, 여가시간에 혁명을 할 것이며, 빈하중농과 함께 혁명을 하고,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거나 교류를 하기 위해 마음대로 생산 부서를 떠날 수 없다.[39]

고 하여, 이 시기 농촌의 경제적 측면 또한 많이 고려되고는 있지만, 상산하향운동은 이러한 경제적 측면에서 도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도시 청년들의 이동까지 제한함으로써 그들을 단속하고자 하는 면이 더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식청년들을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하도록 요구하여 시골로 내려 보낸다는 것은 지식청년들이나 또는 그들이 조직한 홍위병에 대해 모택동이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을 것임을 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모택동에게 골칫거리로 전락해버린 이들 홍위병 조직을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국 1968년 12월, 모택동은 정치적 안정에 대한 위협을 고려하여, 대량의 도시 청년들을 농촌으로 보내어 노동을 하게 함으로써 홍위병조직을 해산하려는 목적을 이루고자, 지식청년들을 상대로 한 상산하향운동을 전국적 범위로 확대, 전개하였다.[40] 모택동은 대학 졸업생들을 공장과 부대로 보내어 노동자나 군인들로부터 재교육을 받게 하고, 중학교 졸업생들은 농촌으로 보내어 빈하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리고 이후 홍위병을 포함한 지식청년들에게 시골에 가서 '빈하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된다. 이것은 모택동이 이미 학생이 아닌 노동자와 농민에게 의지

---

39) 「中共中央, 國務院, 中央軍委, 中央文革小組《關於下鄉上山的知識青年和其他人員必須堅持在農村抓革命促生産的緊急通知》中發 [67] 314號」(1967년 10월 8일), 『知識青年上山下鄉資料匯編』, (html파일).

40) 潘鳴嘯, 앞의 논문, (2005), p. 16.

하여 문혁을 시행하고자 했던 그의 의도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었다.

당시 『인민일보』는 "지식청년들은 농촌으로 가서 빈하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도시에 거주하는 간부 등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한 그들의 자녀들이 시골로 내려가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모택동의 최고지시를 게재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도시에서 생활하며 오랜 시간동안 노동과 단절된 거주민들은 생산노동에 참가하지 않는 것이 국가에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건설과 도시와 시골의 차별을 줄이는 데에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자녀의 사상개조에도 불리하다고 깨달았다. 지식청년 왕경일(王慶一)은 농촌으로 가서 노동에 참가하여 사상을 개조하고, 사회주의 새로운 농촌을 건설할 것이라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등 같은 날 상산하향운동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기사로 가득하였다.[41] 이는 지식청년들에게 상산하향에 참여를 강요하게 된 중요한 근거가 되어 상산하향에 참가하는 지식청년들의 수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42] 그 후 곧바로 전국의 각 대 성시(城市), 중소 성진(城鎭)

---

41) 「我們也有兩只手, 不在城市里吃閑飯!」. 이외에도 많은 기사가 실렸다. 「西鄉縣革委會動員組織知識青年上山下鄉」;「蘭州武漢大批中學畢業生去農村」;「他們在廣闊的天地裏成長－訪天津延安中學在內蒙古插隊落戶的知識青年」;南京肉類聯合加工廠秦志法, 「到農村安家落戶大有作爲」, 이상 『人民日報』, 1968년 12월 22일.

42) 1968년 12월, 모택동의 적극적인 호소와 지시 하에, 상산하향운동은 최고조에 달했다. 1956년부터 1966년 사이에 시골로 내려간 청년들은 대략 120만에 불과했으나,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1,200만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모택동이 상산하향을 지시한 이듬해인 1969년에 농촌으로 간 사람의 수는 260만으로 1970년 전국 대도시 인구의 10%에 달했다고 한다. Stefan R. Landsberger, "Stefan Landsberger's Chinese Propaganda Poster Pages,"(*InternationalInstitute of Social History,* 1994), http://www.iisg.nl/~landsberger/xf.html (accessed November 8, 2008) ; 팽가명, 「≪중국 지식청년 상산하향전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과 수많은 농촌의 민중과 군(軍) 관계자들은 분분히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를 무릎 쓰고, 집회를 열고 시위행진을 하면서 모택동의 이 최고지시에 대해 열렬한 환호를 표시하였고, 농촌에서도 이들 지식청년들이 농촌으로 오는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며, "모택동 사상을 이용하여 그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하였다.[43] 결과적으로 전국적인 범위로 확대된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운동이 전개되면서, 1968년 당시 재학생이던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거의 모두가 농촌으로 떠나서, 문혁 당시 상산하향에 참가하였던 지식청년들의 수는 1,600~1,800만 명에 달하였다.[44] 당시 전국 도시에 거주하던 가정 가운데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과 관련이 없던 가구가 없을 정도였다.[45]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서 볼 점은 모택동은 재교육 대상으로 단지 학생들만 지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기실, 이들은 문혁의 시작과 함께 모택동의 편에 서서 '혁명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였지, 정치투쟁을 통해 패배를 한 사람들도 아니며, 우파분자들로 간주된 사람들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로부터 지식청년들의 상산하향 운동 역시 지식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던 모택동의 불신의 표현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문혁 초기 홍위병들을 통해 대부분의 교육계 인사들에 대한 비

석사학위논문, 2012, p. 311.

43) 「億萬軍民熱烈響應毛主席偉大號召掀起了知識青年到農村去的新高潮」;「用毛澤東思想教育下鄉知識青年」;「歡迎城市知識青年到農村安家落戶」, 이상 『人民日報』, 1968년 12월 23일.

44) 席宣, 金春明 著,(1996), p. 162, 김재선, 『모택동과 문화대혁명』, 한국학술정보(주), 2009, p. 134. 그러나 팽가명이 조사 정리한 〈표〉에 따르면, 문혁이 개시되기 전인 1962년부터 문혁이 종결된 후인 1979년까지 상산하향에 참가한 지식청년들의 수가 1776만 4,800명이다. 팽가명, 앞의 논문, p. 311.

45) 통계에 따르면, 당시 중국 도시 인구의 10%가 이 운동에 휘말렸다고 하였다(김재선, 위의 책, 2009, p. 134).

판적인 분위기가 완성된 상황 하에서 문혁의 전국적인 확대도 완료되었고, 따라서 이들에 의한 지속적인 소요는 더 이상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중국의 인민대중으로부터 재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 또한 "자산계급 지식인들로부터 교육을 받았으므로 자산계급 지식인"[46]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모택동의 인식이 그 토대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데, 모택동은

> 중국의 수많은 지식인들은 비록 선봉적이고 교량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모든 지식인들이 혁명을 끝까지 할 수는 있지는 않다. 그 중 일부는 혁명의 중요한 시기가 오면, 혁명 대오로부터 이탈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중 소수는 혁명의 적으로 변할 수 있다. 지식인의 이러한 관점은 장기적인 군중투쟁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극복할 수 있다.[47]

고 보았던 것이다. 물론 이는 신중국 수립 이전부터 모택동이 지식인에 대해 지녀온 인식이지만, 이러한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과거의 인식이나 표현이 이 당시에도 여전히 『모주석어록』이나 『인민일보』 등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었다는 점은 모택동의 그러한 인식이 당시까지도 여전히 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혁시기에까지 이어진 상산하향운동의 배경이나 원인은 대단히 복잡하여 어느 한 가지 원인만을 언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문혁 이전에 시행된 상산하향운동과도 차이점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

46)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輯, 『毛澤東文集』 Vol.7, 人民出版社, 1996, p. 252.
47) 毛澤東, 「中國革命和中國共産黨」, 中共中央毛澤東主席著作編輯出版委員會編, 앞의 책(Vol.2), 1952, p. 636.

즉 문혁 이전의 상산하향운동의 시행 배경이나 목적이 도시 청년들의 실업문제와 함께, 상급 학교의 부족으로 인한 진학 문제를 해결하고, 한편으로 이를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였다면, 문혁 시기의 상산하향운동은 당시 홍위병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던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 즉 홍위병의 소요를 제거하기 위한 측면 외에도, 이들 지식청년들의 사상개조를 통하여 사상적 불만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전위 부대나 다름없었던 그들을 농촌으로 보내면서까지 해산시키고자 했던 이유를 '빈하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농촌으로 보낸 그들이 다름 아닌 모택동이 문혁 초기 "반혁명 수정주의와 '좌'우경기회주의의 여러 방면으로부터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곤란, 결점, 착오, 그리고 당내와 사회상의 어두운 면을 극복하고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을 끝까지 진행시키고자"[48], 그토록 기다려왔던 "문화대혁명에 부채질하고 불을 지피는 급선봉"[49]이었다는 점에서, 과거 지식인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던 모택동이 당시 홍위병인 학생들까지도 지식인으로 간주하고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빈하중농으로부터의 재교육'은 실천적 의지가 아닌 '구실'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산하향운동의 배경으로 기존 연구에서 제기하고 있는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목적이 아니라, 상산하향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산하향운동에 대해, "일찍부터 변계 지역을 개발하는데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50]거나 지식청년을

48) 「中國共産黨第八屆中央委員會第十一次全體會議公報(1966년 8월 12일 통과)」, 『人民日報』, 1966년 8월 14일.

49) 席宣, 金春明 著, 앞의 책, p. 103.

50) 火木, 앞의 책, p. 450.

동원한 운동의 적극적인 작용은 문혁 시기에는 비록 그 빛을 잃어버렸지만, 사회의 취업 압력을 일부 해소시키고, 농업생산을 발전시켰으며, 국민경제를 지탱하여 사회의 혼란을 통제하고, 정치위기를 극복하는 방면에서는 일정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그 운동의 가치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한다.[51] 그러나 시골로 내려간 이들 가운데 단지 일부 소수만 자원(自願)을 했을 뿐, 대부분은 협조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었으며,[52] 특히 문혁시기에 진행된 상산하향운동의 배경으로 자산계급 성질의 지식인을 배제하고, '반수방수'의 목표를 달성하거나, 무산계급 혁명사업 후계자를 육성하기 위해 시행된 정치운동으로 해석하는 연구자도 있다.[53] 또한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청년들이 도시의 생활을 그리워하며 힘든 농촌의 환경에 불안해했다거나 이후의 회고를 통해 상산하향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여준 점[54]은 상산하향운동이 이들 지

51) 張曙, 「"文革"中的知青上山下鄉運動研究述評」, 『當代中國研究』, 2001年 3月 第8卷 第2期, p. 110.

52) 黃平, 「"五七"幹校與知識青年上山下鄉的意義」, 『知識青年上山下鄉研究資料滙編』(chm파일) ; 문혁시기 모택동이 상산하향운동에 대한 지식청년들의 참여를 지시하였을 때, 전국의 수많은 지식청년들은 이러한 모택동의 이 최고지시에 대해, "농촌으로 가서 빈하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는 것은 지식청년과 노동자와 농민이 상호 결합하는 영광스러운 길이며, 지식청년들의 사상혁명화를 가속화하는 기본 과정"(「河南省郊縣"廣闊天地大有作爲"人民公社知識青年學習毛主席最新指示座談紀要」, 『人民日報』, 1968년 12월 25일.)이라며 농촌으로 향했지만, 결국 이것은 이 최고지시에 의해 농촌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한다. 당시 문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모택동에 대한 개인숭배가 강화되어 가고 있었던 시점에서, 스스로 모택동을 보위하는 '혁명군'이라 자처하였던 이 수많은 지식청년들이 모택동의 이 '지시'를 감히 거역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53) 張樹軍・史言 主編, 앞의 책, p. 591.

54) 梁曉明, 「知青後代記憶中的"上山下鄉"-代際互動過程中的傳遞與建構」, 『青年研究』, 2008年 第11期.

식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더 많이 안겨다 주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문혁이전 시기인 1950년대부터 문혁이 종결된 후인 1970년대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전개된 대중적인 성격의 운동인 상산하향운동의 기인에 관하여 간략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문혁 시기에 진행된 상산하향운동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규모면에서 이전 시기의 그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그 결과 주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던 이 운동이 문혁 시기에 접어들면서부터는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모택동에 의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다는 기존의 사실과 함께 그 배경에는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

모택동은 1950년대와 문혁을 통하여 수많은 지식인들을 박해하고 타도하였다. 특히 문혁 시기에는 학생들을 동원하여 그 지식인을 박해하고 타도하려는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하지만 그는 당시 지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 또한 지식인으로 간주하여,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개조를 구상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빈하중농으로부터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슬로건을 통해 전국의 지식청년들로 하여금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분위기 하에서, 이러한 모택동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자신의 아들일지라도 비판을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기도 하였던 것이다.[55]

---

55) 永忠東 紅秋,「羅師傳的家庭批判會」,『人民日報』, 1969년 1월 15일.

전통적인 봉건사회에서 보통의 '민'(民)이 '주'(主)가 되는 경우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보통의 '민'은 이제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국 또한 신해혁명을 전환점으로 하여 '인민'이 '주인'인 나라가 수립되었지만, 여기에서의 '인민'은 어디까지나 '보통'의 '인민'을 완벽하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이 '보통'의 '인민'이 중국에서 '강력한 주인'이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였다. 그리고 이 '보통'의 '인민'을 '강력한 주인'으로 만들고자 했던 주체는 당시 권력을 지니지 못했던 중국공산당이었다. 중국공산당은 '기득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세력 결집을 이 '보통'의 '인민'들로부터 찾고자 하였다. 특히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계급에 의지하려고 하였던 다수 공산당원과 달리 모택동은 당시 중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계급에 의지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두 계급은 살아가는 방식과 성질이 달랐으므로, 농민계급에 주의를 기울인 모택동은 농촌에서 이들에 의지하여 점차 세력을 확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그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대다수 중국인민의 지지 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이후 정치적 전환점에 서게 될 때면 모택동은 항상 군중과의 단결이나, 농민이나 노동자들로부터 학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이들 '군중' 속에 지식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문혁의 시작과 함께 대대적으로 의지하였던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그의 관점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상산하향운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구를 하기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문혁 시기의 상산하향운동은 지식인에 대한 모택동의 부정적인 인식을 근거로 한 지식청년들의 사상을 개조하고자 했던 '반지식인운동'과도 일부 맥락을 함께 한다고 조심스럽게 새로운 정의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 운동이 문혁의 시작과 함께 더욱 활발하게 전개된 이

상, 문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문혁 당시 최대의 가해자였던 이들이 상산하향운동에 참가한 이래 일부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오히려 문혁의 피해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 대해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 문혁은 여전히 그들에게 현재진행형으로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高等院校黨史教師 合編, 『中共黨史學習資料』, 1981.
教育部組織編纂, 『中國教育年鑒(1949-1981)』. 中國大百科全書出版社, 1984.
宋永毅 主編, 美國『中國文化大革命文稿光盤』編委會 編纂, Chinese Cultural Revolution Database, 香港中文大學・中國研究服務中心, 2006.
竹內實 監修, 毛澤東文獻資料研究會 編集, 『毛澤東集』第2版, Vol.1-10, 蒼蒼社, 1983.
中央教育科學研究所教育史研究室 編, 『中華人民共和國教育大事記稿 1949-1979』, 中央教育科學研究所, 1981.
中央檔案館 編, 『中共中央文件選集』 Vol.1-18,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9-1992.
中共中央文獻研究室 編, 『建國以來重要文獻選編』 Vol.10-11, 中央文獻出版社, 1994.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建國以來毛澤東文稿》, Vol.1-13, 中央文獻出版社, 1987-1998.
中共中央毛澤東主席著作編輯出版委員會編, 『毛澤東選集』 Vol.2-5, 人民出版社, 1952-1977.
中央文獻研究室 編, 『毛澤東文集』 Vol.1-8, 人民出版社, 1993-1999.
中國人民解放軍・國防大學 黨史黨建政工教研室, 王年一 選編, 『"文化大革命" 研究資料』上・中・下冊, 1988.
『人民日報』
『知識青年上山下鄉資料匯編』(chm파일)

『紅旗』雜志

2. 논문

손승회, 「新左派의 文化大革命 認識」,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69호, 2013, pp. 69-110.
팽가명, 「≪중국 지식청년 상산하향전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高廣景, 「知識青年上山下鄉原因探析」, 『黨史文苑』, 2006年 第8期, pp. 10-11.
米鶴都, 「析上山下鄉運動的起源」, 『當代中國史研究』, 1999年 02期, pp.93-97.
楊文才, 「"文革"前"知青"上山下鄉的起因與作用」, 『廣西社會科學』, 2002年 05期, pp. 221-223.
梁勝宇, 「"一五"時期中國城鎭就業政策研究」, 『中共黨史研究』, 2005(1), pp. 43-52.
梁曉明, 「知青後代記憶中的"上山下鄉"-代際互動過程中的傳遞與建構」, 『青年研究』, 2008年 第11期, pp. 1-8.
吳林根, 「毛澤東與知青上山下鄉運動析」, 『毛澤東思想論壇』, 1995年 01期, pp. 53-55.
王一晶, 「知識青年上山下鄉和勞動就業」, 『青年研究』, 1991(11), pp. 36-41(추가 p. 49).
柳建輝, 「"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興起原因初探」, 『中國青年研究』, 1991年 第4期, pp. 30-32.
柳建輝, 「也談中國知青的歷史分期」, 『中國青年研究』, 1996年 第1期, pp. 30-33.
李華, 「20世紀50年代蘇聯全民墾荒運動」, 『南通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年 第3期, pp. 70-74.
潘鳴嘯, 「上山下鄉運動再評價」, 『社會學研究』, 2005年 第5期, pp. 154-181(추가 p. 245).
潘鳴嘯, 「上山下鄉不解決就業實爲强化領袖權力」, 『青年時報』, 2014年, 第A13版.
孫濤, 「知識青年上山下鄉政策之歷史性反思」, 『石家莊經濟學院學報』, 2004年 05期, pp. 597-599(추가 p. 616).
孫懷安, 「"文革"中知識青年"上山下鄉"運動擴大化原因的多維視角」, 『遼寧行政學院學報』, 2006年 10期, pp. 221-222.
魏紅躍, 「1955－1965年的上山下鄉研究」, 陝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張曙, 「試論"文革"中的知青上山下鄉運動幾度起伏的經濟因素」, 『世紀橋』, 2001年 01期, pp. 12-13.
張曙, 「"文革"中的知青上山下鄉運動研究述評」, 『當代中國研究』, 2001年 3月

第8卷 第2期, pp. 102-110.
張澤民・買文蘭, 「知識青年上山下鄕的歷史考察與思考」, 『河南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8年 05期, pp. 40-44.
錢鋼, 「從《解放軍報》(1956-1969)看「階級鬪爭」一詞的傳播」, 『二十一世紀雙月刊』, 2003年 6月號 總第七十七期, pp. 50-60.
鄭謙, 「"文化大革命"中知識青年上山下鄕運動五題」, 『中共黨史硏究』, 2013年 9期, pp. 43-58.
許珍芳・杜雪暉, 「知識青年上山下鄕運動興起時間再考査」, 『學理論』, 2013年 08期, pp. 184-185.
馮都, 「知青上山下鄕緣起蘇聯 只爲解決糧食和就業問題」, 『網易新聞中心』, 2006. 03. 13.

3. 단행본

김재선, 『모택동과 문화대혁명』, 한국학술정보(주), 2009.
신승하 저, 『당대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대만』, 大明出版社, 2006.
왕단 지음, 송인재 옮김, 『왕단의 중국현대사』, 동아시아, 2013.
천이난(陳益南) 지음, 장윤미 옮김. 『문화대혁명, 또 다른 기억 : 어느 조반파 노동자의 文革 10년』, 그린비, 2008.
필립 판 지음, 김춘수 옮김, 『마오의 제국』, 말・글 빛냄, 2010.
顧洪章 主編, 『中國知識青年上山下鄕始末』, 人民日報出版社, 2008.
共青團北京市委編, 『文化大革命育新人』, 中國青年出版社, 1976.
金聖基 主編, 『聚焦人民大會堂見證 共和國重大歷史事件始末』, 中共黨史出版社, 2006.
杜鴻林, 『風潮蕩落--中國知識青年上山下鄕運動史』, 海天出版社, 1993.
劉小萌, 『中國知青史大潮(1966-1980)』,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8.
席宣, 金春明 著, 『"文化大革命"簡史』, 中共黨史出版社, 1996.
王增如・李向東, 『上山下鄕 : 中國1968』, 解放軍出版社, 1999.
王檜林 主編, 郭大均 副主編, 『中國現代史1949-2002』 下冊, 高等敎育出版社, 2011.
張樹軍・史言 主編, 『紅色檔案: 中國共産黨重大事件實錄』 下卷, 湖南人民出版社, 2006.
陳揚勇, 『周恩來在1967』, 重慶出版社出版, 2006.
火木, 『光榮與夢想-中國知青25年史』, 成都出版社, 1992.
Stefan R. Landsberger, "Stefan Landsberger's Chinese Propaganda Poster Pages,"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History*, 1994).

http://www.iisg.nl/~landsberger/xf.html(accessed November 8, 2008). 2015년 5월 13일 검색.
http://history.people.com.cn/GB/205396/13921300.html, 2015년 5월 21일 검색.

(**투고일**: 2015. 7. 8 **심사완료일**: 2015. 8. 2 **게재확정일**: 2015. 8. 5)

김기효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인문대학 사학과
전화번호: 010-5653-0246
전자우편: kkihyo@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o Zedong and Causal Factors for the Educated Urban Youths Participating in the "Up to the Mountains, down to the Villages" Movemen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Kim, Ki-Hyo

This manuscript was to study causal factors for the "Up to the mountains, down to the villages" movement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in China.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the topic of the "Up to the mountains, down to the villages" movement. However, most of the studies have focused on economic aspects of this movement. Some others have viewed this movement as a solution to political issue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his manuscript is intended to provide additional clarification on causal factors for this movement. Given the fact that educated urban youths were targeted and mobilized in this movement, I concluded that Mao's negative cognition of the traditionally educated intellectuals was one of the fundamental causes for this movement.

Mao Zedong persecuted and overthrew numerous intellectuals during the 1950s and through Cultural Revolution. Mao achieved his goal (of overthrowing the intellectuals) to a certain degree by mobilizing students during Cultural Revolution. However, he also thought of students as intellectuals and envisioned how to reform those. Consequently, he induced the displacement of the urban educated urban youths to the countries with the purpose of receiving reeducation from the poor and lower-middle peasants through a slogan of "Up to the mountains, down to the villages."

Key words: The ideological remolding movement, Educated urban youths, Down to the countryside movement, The cultural revolution, Mao Zedong